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슬픈 눈물과 기쁜 눈물 (하)

김성식 (대전시 중구 부사동)

조급한 마음에 영양이 있는 음식을 통해 먹으면 바로 병원으로 실려 가야만 했다. 병명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양방, 한방 모두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정신병동에 입원실이 마련됐다.

몸은 점점 아위어 갔다. 학교는 운전하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교대로 데려다 주어서 1주일만에 한 번 정도 출석할 수 있었다. 초조해진 부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다.

다 큰 자식이 힘을 못 쓰고 방 한가운데 길게 누워있는 꼴이라니.

"병명이라도 있어야 약을 써보지라도 할 텐데..."라며 어쩔 줄 몰라 하셨다.

IMF와 함께 맞은 이 아픔은 가정을 송두리째 어둡게 했다.

부모님은 불심(佛心)이 깊으셨다. 아버지는 아침에 회사로 출근 할 때마다 내게 오

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다니셨다. 아버지 또한 이때 불교에 심취하여 스승님을 모시고 경전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고,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실 때였다. 답답한 마음이 된 어머니는 기력이 떨어져 눈을 감고 쓰러진 내 손과 다리를 주무르며 <금강경>을 무심히 읽고 계신 아버지를 향해 통명스런 말씀을 건넸다.

"여보! 다 큰 자식이 쓰러졌는데 그 경전만 읽고 있으면 어쩌지는 거유?"

그 말씀에 충격이 크셨는지 아버지의 <금강경> 독송은 그 날로 끝을 맺으셨다.

나는 심하게 아픈 곳도 없이 점점 마르고 아위어 갔지만 정신만은 초롱초롱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나를 일컫어 세웠으나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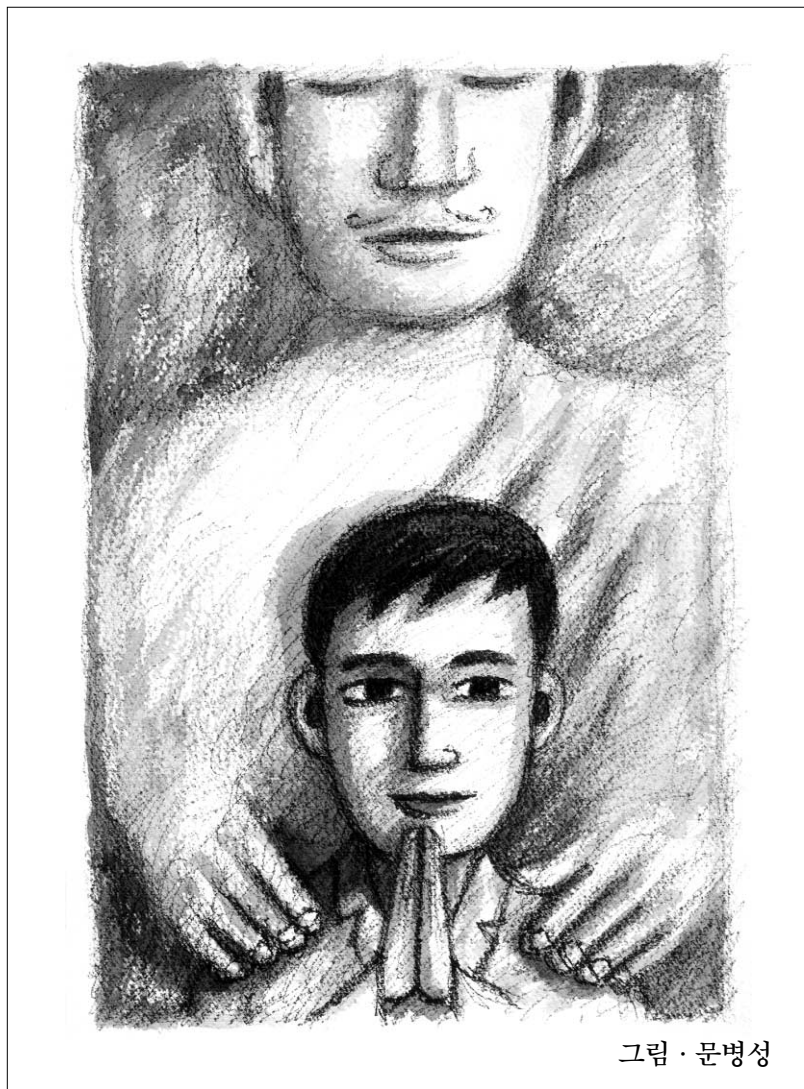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울리기 위한 운동을 했다. 6개월 후 다음 기(期)에 다시 입소, 이번에도 4주 만에 총을 들고 훈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퇴소하게 되자 내 병은 지휘 장교는 물론 화교장까지 알 정도로 유명해져 있었다.

학창시절 운동 장교의 꿈을 키워왔던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6개월 후 학사장교가 아닌 사관학교를 지원해 응케 합격을 하였다. 학사장교 훈련보다 배나 힘들었다. 나는 이곳에서 죽고 싶었다. 다시 무릎이 시려와 연병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때, 문득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자위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산 속 절로 떠나 세월의 기약 없는 기도에 돌입하고 아버지 혼자서 나를 안다잡

처음으로 맞은 부처님오신날.

사단으로 파견된 나는 군법당(軍法堂)에 가서 향과 촛불을 켜고 3천 배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품속에서 건강하고 인물 좋은 어떤 분이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눈과 입 속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작은 구름 같은 물체를 찌꺼내 내었다. 그때의 청량감과 시원함은 꿈을 깨고서도 생생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날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재를 올렸다고 하셨다.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기 제대를 무사히 마쳤다.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절에서 기도(祈禱)중이신데 올해가 어느덧 5년째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다니시며 집에 미륵부처님을 모셔놓고 정진(精進)중이다.

법주사 마당에 큰 자태로 우뚝 서 계신 미륵부처님을 우러러 보며, 내 자신의 교만

원인 모른채 허약증 시달리다

서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묵묵히 쳐다보곤 하셨다.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에 응용하고 계시던 터였다. 눈빛으로 어떤 '믿음'을 내게 보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과자 한 봉지 어린 손에 들려주고 서둘러 초하루 법회에 다녀오시곤 했는데, 그 후 무슨 재일(齋日)이

돌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환이 이어지자 무속인과 절을 찾아 헤매게 되었고, 나는 나대로 인근 사찰인 법주사에까지 가서 막연히 부처님께 매달려보는 도리 밖에 뵈쪽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어디 가서 들었는지, 아들에게 좋다는 것은 다 했다. 산에 가서 빈다거나, 세 가지 나물을 해서 대문 밖에 나가 집

시까지 깨버리다거나, 1백여 집을 다니며 쌀을 3홉씩 구걸하여 떡을 하여 부처님께 올린 다거나, 부적을 사다가 집안 구석구석 붙인 다거나, 용하다는 스님·법사·보살·무속인 등을 찾아 인근은 물론 청주, 서울 등지까지 백방으로 뛰었다. 재(齋)도 수없이 지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영가(靈駕)를 어머니께 서 받아들이는 곳을 하기도 했다. 그 후 조금은 몸뚱이를 추스를 수 있었다.

졸업을 하는 등 마는 등 4년을 마치고 학사훈련을 받으려 입소하게 되었다. 훈련 12주중 4주 기초훈련을 마칠 때쯤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퇴소 당했다. 이때 몸무게는 49kg이었다.

노심초사 격정하시던 부모님은 내가 허약한 체구를 이끌고 입소하자 한 달 만에 집 때문에 들어서는 것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다. 나는 집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군중병 지원해 3천배로 새 삶

게 맞아 주셨다. 곧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았지만 무릎이 왜 시린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대학 졸업하고 2년이란 허송세월이 흘러갔다. 집에는 이미 사병 입대 통지서가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적(兵籍)카드에 나의 이력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병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소대선임, 중대선임, 학생장등의 일을 맡아 하게 됐다. 이런 공로로 이병(二兵)으로서 훈련소장(少將) 표창장까지 받았다. 이때 집에서는 그동안 확보로 지원 받은 군장학금을 목적으로 갖기 위해 집을 은행에 저당 집권 상태였다. 또한 병명 없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끌어낸 부채도 컸다.

입대 전 나 혼자 무속인을 따라가기도 하다 해본 가라미 있어서 자대(自隊)에 배치되자마자 군중병(軍宗病)을 지원했다. 일요일마다 목탁을 치며 사병을 이끌고 사단 법사님을 합격 도왔다.

했던 지난날을 뒤돌아본다.

황금과 명예를 향해 끝없이 돌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끝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제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지금 내 상황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병은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것이 신앙의 문턱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지 잘 모르겠으나 입으로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대 전환점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또한 불보살님들이 지난날 어린 나를 해쳐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비스런 일침을 가하셨음을 고마워하며, 오늘은 미륵부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나무 미륵존여래불.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 일어났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3월1일, 15일, 29일 599,000원

야호 여행사

서울시 중로구 중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세부 일정	식사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세부 일정	식사
1일(화)	인천 항주	OZ359	11:00 12:50 13:50	인천공항 3층 출국장 B-C가운더 7번 테이블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중국 항주 도착 항주의 아름다운 서호 비례봉, 영은사 관광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월드 대(4층)	중·기내식 석·현지식	4일(금)	보타산 상해	전용차량 선 편	전 일	호텔조식 후 보타산의 대탈 보태선사, 고찰 범오선사 등 순례 고속해리 편으로 보타산 출발 심해 로프웨이 도착 시내 이동(약 1시간 20분)석식 후 항주항구의 야경 관광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화정그린(4층)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2일(수)	항주 영파	전용차량	전 일	호텔조식 후 항주 출발, 영파 도착, 이목항사, 태백산 천룡사 순례 석식 및 호텔투숙 HOTEL : 넬파대주점(4층)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5일(토)	상해 인 천	전용차량	08:00 16:30 19:05	호텔조식 후옥림사 순례 후 중식 공항으로 이동 상해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기내식
3일(목)	영파 보타산 나가산 보타산	전용차량 선 편	전 일	호텔조식 후고속해리 편으로 보타산 이동 불공기관유원 참배 선편으로 나가산으로 이동 후 5배 나한탑과 관세음보살을 모신여러 사찰을 참배 후 보타산으로 귀환,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보타산대주점(4층)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함사항 : 항공·호텔 2인 1실 기준(4층), 일정상의 식사, 차량,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웨어 ● 불포함사항 :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일정상의 비용 및 가이드 및 기차표 여권 및 비자 수수료
● 신청방법 : 전화예약 후 은행송금

6 바이오연옥 9®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춘천 연옥분 특수코팅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소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액인체 장애 방지시험', '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 '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 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형 석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성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산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바이오연옥 본사 031)444-0005 본사 직영 매장 분당 오리역(한국까르푸) 2층 031)728-6250